

2017년 한국여성신학회

총연기획세미나

# 여성신학자의 눈으로 본 세월호

일시: 2017년 12월 2일(토) 오전 10: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소예배실

## 목 차

10:00	인사말	이숙진(한국여성신학회회장)
10:05	여는 말, 세월호와 여성신학	이은선(세종대학교 교수)
10:15	세월호1, 그 후 이야기	오현선(호남신학대학교 교수)
11:30	쉬는 시간	
11:40	세월호2, 우리의 이야기	오현선(호남신학대학교 교수)
12:30	알리는 말씀	
12:40	닫는 말	

\* 학술제 후에는 따뜻한 점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집은 오현선 교수님이 지난 세 편의 논문을 묶은 것입니다.

#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의 신학교육적 성찰<sup>1)</sup>

오현선(호남신학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은 시장자본주의를 인류역사상 가장 최적화된 효율적 경제시스템으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존중 할 공명정대한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하는 일들이 만연되는 가운데 (Robins, 2014)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시장자본주의에 의해 시민사회의 안녕과 민주적 발전이 순식간에 위협을 받으며 나의 생명 역시 안전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기에 세월호 사건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시민 모두에게 충격적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더욱이 사건의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안전한 사회로의 장치, 희생자 보상과 치유라는 분명한 일의 과정이 상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면서 한국사회의 시민과 종교인들은 충격을 넘어 불안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 순례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이었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의 상황에 연대하고자 하는 하나의 응답으로서 진행된 것이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이다. 그래서 이 글은 순례의 내용을 기록하고 신학적, 신학교육적 측면에서 순례의 내용을 성찰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참여행동연구방법(PAR: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관점을 가진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세월호 관련 희생자,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의 봉사자, 순례자, 세월호 사건에 연대하는 참여자 등과 행해졌다. PAR은 질적조사 방법의 한 영역으로서 연구자의 객관성, 중립성보다 연구 대상과 대상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공감하는 연구자의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역시 연구자의 과제로 선택하는 사회조사방법이다 (Clandinin, 2000, Greenwood, 1998, and Maguire, 1987).

## II.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의 기록

### 1. 순례의 시작

지난 2014년 8월 11일에서 20일 총 20일간 ‘팽목항’에서 ‘안산화랑유원지’까지 총 590km를 걷는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가 있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하의 이 순례는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서 본 연구자와 개신교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 시민들의 참여적 연대 순례였다. 4월 16일 발생하여 현재까지 시신으로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을 포함하여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사건(세월호 위키백과)은 한국사회에 충격 그 자체였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희생자와 가족의 문제 등 어느 하나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자 희생자 아버지들이 직접 십자가 순례와 40일간의 단식 등으로 저항과 호소행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기독교 도보순례단의 한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 도보순례가 시작된 것은 이러한 계기에 더하여 남은 실종자가 돌아오고 희생자 가족의 아픔과 고

1) 본 논문은 『한국여성신학』 제80호, 2015.02, 61-85에 실렸습니다.

통에 어떠한 형태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아지면서였다. 순례를 가능하게 한 것은 희생자와 그 가족,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연대한 ‘사람’들의 공감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차적이지만 순례의 구체적 계기가 된 것은 희생자 가족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함으로써 자신 스스로도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한 기독교인의 고민으로부터였다. 직업이 약사인 이승용 씨는 세월호 재난 사고 첫날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모두가 구조되어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가 무너지자, 시신수습을 위한 수색의 시간에 실종자 가족들의 기다림에 함께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색의 결과가 어떤 진전도 없이 실종자 가족의 고통이 국민들로부터 잊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가족의 고통에 연대하고 스스로도 치유되기 위하여 순례를 결심하였다.

이 계획을 7월 28일, 당시 팽목항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필자에게 다가와 나누고 이를 계기로 순례준비는 시작되었다. 그 결과 8월 11일 15명의 순례자가 이른 6시 진도 팽목항에 모여 여는 예배로 순례의 첫 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이 순례에 공명한 많은 신학생들과 기독교인이 이 순례의 순례자로 참여하였다. 특히 여름방학 중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비롯하여 돌아가신 문명수 목사를 비롯하여 조원식, 김성원 목사 등이 헌신하였던 팽목항 진도교회연합회 봉사사역에 함께 하고 있던 호남신학대학교 50여명의 학생들이 순례를 결심하게 되었다. 순례자들은 실종자 가족의 요청으로 실종자 10명(당시)의 얼굴사진이 새겨진 노란 색 조끼를 입고 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10개의 깃발을 들고 순례를 떠났다.

19박 20일간 총 590km의 도보 순례과정에서 순례자들에게 점심식사, 저녁식사와 잠잘 곳, 쉴 곳을 제공한 곳은 개신교 교회였다. 감리교, 기독교장로교, 성공회를 비롯하여 장로교 통합측 36개 교회 등 50여 개신교 교회가 순례에 여러 모습으로 연대하였다. 순례에는 호남신학대학교의 봉사자들 외에도 부산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 기독교학과의 신학생들, 목회자, 기독교인,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시민 등 250여명의 순례자가 일정 구간을 오가며 함께 하였다. 필요한 재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의 사회부가 지원하였다.

## 2. 순례의 진행

순례는 희생자들이 바다로부터 돌아와 처음 만나는 땅 팽목항에서 시작하여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269위의 영정이 놓여 있는 경기도 안산의 화랑유원지까지를 순례구간으로 정하고 20일 간 국도를 따라 걷는 순례였다. 순례는 공식적으로 3가지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첫째는 당시 실종자로 남아 있었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5명, 교사 2명, 그리고 일반인 3명 총 10명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기도, 둘째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원하는 방식의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기도, 셋째로는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의 가치로 회복되는 교회와 사회를 위한 기도였다. 이 3가지와 더불어 매일 두 명의 실종자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순례를 진행하였다.

기도와 예배는 순례의 중심축이 되었다. 오전 5시에 일어나 저녁까지 하루 10시간 이상을 국도를 따라 걷는 쉽지 않은 매일의 순례가 예배로 가능했다 할 정도로 순례자들은 예배에 마음을 모았다. 새벽 5시 반과 저녁 9시에 드렸던 하루 두 차례의 예배는 순례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었다. 예배는 시편읽기, 복음서 읽기, 회개의 찬송, 성찰적 이야기 나눔, 공동의 기도, 축도로 구성하였다. 예배는 하루하루 다른 형태를 더 해 가며 창조적으로 드러졌다. 어떤 장소에서 머물던지 둥그렇게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순례 가운데 개인에게 공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 세월호 사건과 가족에 대한 생각,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 등을 나누었다.

## 3. 순례의 마무리

20일 간의 순례는 화랑유원지에 놓은 영정들에 참배하고, 희생자 가족들과의 인사에 이어 마치는 예배로 공식 마무리를 하였다. 마치는 예배는 순례기간 동안 함께 부른 ‘우린 무얼 했나’ 라는 에큐메니칼 찬양과 순례단 지기였던 필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예배 후 일부 순례자들은 일반인 영정이 있는 인천시청 미래광장으로 가 참배를 한 뒤, 서울의 광화문광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서 순례기간 순례자들이 입었던 실종자의 얼굴이 새겨진 노란조끼를 유가족에게 전하는 국민행사에 참여하고는, 40일간의 단식 후 요양 중이던 김영오씨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해산하였다.

### III.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의 신학적 성찰

#### 1. 세계교회와의 연대로서의 순례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는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목적으로 구성된 순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순례는 세월호 사건 희생자에 대한 기독교 신앙인의 연대 행위로서, 나아가 WCC 10차 총회 메시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WCC 부산총회는 11차 총회까지 세계교회를 향하여 누가복음 1장 78-79절의 말씀위에 서서 “정의와 평화의 순례에 참여하라(Join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는 순례로의 초대 메시지(WCC 홈페이지)를 세계교회에 남겼다.

이 메시지는 한국의 통일을 희망의 상징으로 기대하며 한국교회의 경험을 포함하고(메시지 번호1, 3) 평화를 위한 정의, 치유를 위한 화해, 세계를 위한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메시지 번호2)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메시지 번호4), 지구적 위기의 시간에 경제적, 생태적, 사회정치적, 영적 도전에 대면하여 희망을 발견하고자 한다. 메시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변으로부터 들리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대적 행동으로 해방을 위한 헌신의 순례에 함께 할 것을 세계교회에 초대하고 있다.(메시지 번호5) 세계교회는 전 지구적 생명체의 위기감을 교회가 인식하고 정의와 평화를 전제로 하여 생명세계로 나아가는 교회의 순례를 요청하였다.

오늘의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제를 포함하여 정치, 문화, 종교 등 전 영역에 걸쳐 반생명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Robra, 2013, 8-9). 한국사회도 물질주의와 그에 대한 탐욕을 규범처럼 허용하고, 물질적 성공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방편이 되었다.(Kim, 2014, 20). 무한성장을 허용하며 소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경제체제가 인간과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권력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전쟁과 갈등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지속적 위기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Robra, 2013, 9). 그러나 WCC 부산총회는 세계적 경제 불평등의 문제, 반 생태적 개발에 의한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문제, 국가와 계급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가난한 자의 이주가 지구화되고 있는 문제 등 인종 간, 국가 간, 종교 간의 갈등문제로 위기에 처한 세상을 향하여,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요청함으로써 교회의 역할에 대한 희망을 택하였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단지 선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를 향한 변화로 이끄는 ‘역사’적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순례와 순례자에 대한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시지는 ‘하나님의 변혁적 사역’에 함께 하는 순례자가 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메시지 번호3). 순례자는 창조세계의 정의로운 청지기(just stewards)로써 ‘변혁적’ 행동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메시지 번호4). 세계의 교회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았고 순례에 초대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정의와 평화의 변혁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순례 공동체가 다양하다 해서 저절로 ‘변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존재하기 위해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어떤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듯(Volf, 1996, 29) 순례 공동체가 얼마나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순례 주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변혁적인가, 또 변혁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메

시지의 본질적 주제로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다수’ ‘주류’ ‘전통’ 집단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 청년, 원주민, 이주민, 장애우를 모두 나열하듯 함께 하자는 수준을 넘어 순례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바라봐야 한다. 참여자가 다양하다는 것은 순례의 다채로움으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순례의 지향성과는 무관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향성은 이 ‘주변화 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변혁의지와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단순 다양성을 넘어, 새 하늘 새 땅(엡1. 23)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순례 주체의 포괄적이며 변혁적 지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WCC백서, 2014, 464). 즉, 포괄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주체들이 다양한가’ 라고 묻을 것이 아니라 순례를 참여하는 ‘내가, 우리가 포괄적이나’ 라고 물어야 한다. 소외된 주변인, 피억압자 문제를 순례자 자신의 과제와 연결하려는 의지를 가졌을 때 비로소 ‘포괄적이다’ 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오현선, 2014, 14-15).

WCC 총회는 사전대회, EC(Ecumenical Conversation), 마당 등 다양한 통로와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여성, 청년, 장애우, 원주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총회가 화려하고 다채로웠어도, 한반도 문제, 지구의 위기, 피억압지역의 사회적 약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구체적 실천과제를 도출해 보려는 일에 소극적이던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기독교 도보순례는 열린 공간이었다. 누구나 함께 걸을 수 있으며, 어느 때 와도 함께 기대고, 울고, 웃으며, 먹고, 자며, 기도하며, 걷는 순례가 가능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얽혀 순례의 방향성과 몸과 마음의 감동을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잠시 동안은 함께 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세계교회의 상징적 순례가 되던,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며 걸었던 순레이던 생명과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순례는 크게 두 영역의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생명, 정의, 평화의 상태가 아닌 억압과 불안, 심지어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순리로 받아들여 순응하는 피억압자, 주변인, 소외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삶의 문제를 정의와 평화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성서가 말하는 ‘작은자’들이다. 기독교는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작은 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갖고 있다(마태복음 25장 45-46절).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지향적이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순례는 작은 자들의 순례이다. 작은 자로서 자신이 경험한 피억압, 주변화의 경험을 인식하고(see), 이에 대한 비판과정(judge)을 거쳐 변혁(transformation)을 위한 실천(act)과 해방의 과정(Schipani, 1988) 자체를 삶으로 순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둘째로는 순례는 작은자와 해방적으로 연합하고자 연대하는 사람들의 순례이다. 자신의 삶이 피억압적이거나 주변화되어 억압과 소외로 점철된 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과 복음이 작은 자, 약자의 해방을 우선시함을 고백하며 순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연대하는 사람 혹은 그러한 교회를 말한다. ‘잠재적 작은 자’들을 의미한다. 앤드류 김은 “하나님을 알기위해서는 가난한 자와 연대하는 정의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위해서는 누구나 가난한 자의 구체적 상황에 함께해야 하며 변혁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한 구티에레스를 인용하면서 사회의 부정의와 맞서 정의를 이루는 적극적 연대 행동이 종교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Kim, 2014, 26).

실제로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에 참여한 신학생들 가운데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쳤는데 실제로 나 자신은 과연 어떻게 이웃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월호 사건이후 자꾸 양심에 걸려 이 순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자신과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신도 잠재적으로는 미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과 현재 고통받는 사람과의 연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생으로서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는 인식이 공통의 고백이었다.

순례는 순례과정 자체가 목적이요 교육과정인 순례이다. 순례 과정에서 순례자들은 변혁적 포괄성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양육하고 양육되는 존재들이다. 순례 주체들은 순례의 과정 안에서 스스로를 양육하는 동시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변화를 기대하면서 피식민성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한다. 피식민성

이란 억압적으로 주변화 되어온 자신과 삶의 상황을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수용하여 내면화 해 버린 자기의식이다. 가난한자, 여성, 어린이, 청년, 난민, 이주민, 무국적자, 상처 입은 피조물 등 이 시대의 경제체제, 인종관계, 종교근본주의에 의해 비존재화 된 존재들은 더 이상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순례의 주체로서 포괄적 순례를 지향하며 포괄성의 교육과정을 통해 용인해 버린 피식민성을 극복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획득한 자유가 또 다시 권력화 되지 않도록 성찰할 수 있는 주체의 변화가 순례를 통한 교육의 목적이요 결실이 된다. 작은 자로서 스스로 존재할 권리, 생존할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 정체성을 드러낼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우선적 과제로 삼지 않는 순례는 또 다른 소외를 낳게 할 것이다.

포괄성의 교육과정은 ‘잠재적 작은 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의도하든 아니하든, 세계의 억압과 식민화에 기여해 온 개인의 삶의 태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지배적이며 일방적이며 위계적이며 배타적이며 폭력적이었던 과거의 태도와 부정 행동을 반성함으로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는 해방의 교육과정이다. 그동안 교회는 작은 자를 구호와 연민의 대상으로만 삼았지 변혁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 미묘한 배재와 타자화를 지속해 온 사람/교회의 해방 역시 순례의 중요한 교육과제가 된다.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작은 자가 되려는 기득권층의 변혁이 일어나는 포괄적 공동체의 순례가 하나님나라를 향한 진정한 의미의 순례이다. WCC의 메시지는 ‘우리가 변화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메시지 번호2). 순례는 변혁적 존재들의 실천 과정이다. 정의와 평화를 빼앗긴 자들이 주체가 되고 그들의 초대에 연대함으로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순례여야 한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위기에 처한 불안한 사회상을 여실히 드러낸 세월호 사건은 메시지가 밝히고 있는 대로 경제적, 생태적, 사회정치적, 영적 위기를 드러낸 것이었기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을 회복하려는 교회의 양심에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 기독교 도보순례는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목적으로 떠난 순례는 아니었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적 복음의 회복을 염원하며 떠난 변혁적 발걸음이 세계교회와의 연대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 2. 신학교육의 장으로서의 순례

순례자들에게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는 신학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하였다. 순례를 준비하고 순례의 전 과정을 기획 운영하며 또 참여했던 신학생들은 순례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목회적 비전, 나아가 스스로 발견한 신학적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신학교육의 의미를 가진 순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 a. 예배를 통한 예전교육

도보순례자들은 대부분 순례를 가능하게 한 힘이 예배에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하루 30Km 가까이 걷는 힘든 일정에도 예배를 하지 않았던 날은 없었다. 오히려 비가 오는 힘든 날씨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위험한 도로를 걸을 때, 설 곳이 여의치 않아 순례가 더 어려운 날일수록 순례자들은 예배에 정성을 드렸다. 한 참여자는 예배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하였다. “우리의 도보순례가 국토순례와 다른 것은 예배와 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걷다보면 발과 몸, 전신이 아파서 왜 걷고 있는지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순례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루를 걸으며 했던 생각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고 계속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또 지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음 날 순례걸음이 이상하게 가볍고 덜 힘들게 느껴져요. 그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하루 두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 순례의 의미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상기하고 심화하면서 시종일관 한 마음으로 순례에 임 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예배는 예배로의 초대, 시편읽기, 복음서 읽기, 찬양, 침묵, 말씀 나누기, 축도로 구성하였다. 예배의 말씀은 한 설교자가 혼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순례경험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침묵 가운데 묵상, 정리하여 공유하고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침묵방식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생각이 정리되면 눈을 뜨는 것으로 약속하여 모든 사람이 눈을 뜰 때까지 침묵으로 기다린다. 침묵의 고요함은 함께하는 참여자 간의 신뢰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그 침묵이 깊어지면서 불안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게 되기 때문이다(Guenther, 1992, 17). 모두가 눈을 뜨면 7-10 사람이 자신의 성찰을 차례로 나눈다. 한 순례자가 말을 마치면 나머지 순례자는 ‘당신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희망이!’ 하며 응답의 인사를 한다.

예배에서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은 에큐메니칼 찬양 ‘센제니나(Senzenina)’라는 남아프리카 곡이었는데 ‘센제니나 센제니나/ 무얼했나 우리모두/ 우리의 죄 너무크네/ 들으소서 우리기도’라는 가사를 조용히 반복하는 곡으로 WCC 10차 총회 개회예배를 통해 전 세계의 교회에 알려진 회개의 찬송이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만큼 파편화되고 부조리해진 사회를 경험하면서 가슴 아픈 통회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찬송을 부르며 생명과 정의의 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는 순례자들의 기도이기도 하였다. 마지막 저녁예배는 성찬예배로 드렸다. 20일의 안전한 순례와 순례가 준 모든 경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례가 마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성찬을 함께 함으로 세상으로 이어지는 순례를 다짐하는 예배가 되었다.

고난과 고통에 한 가운데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바람을 담고 떠난 순례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성화되는 경험을 한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삶의 자리이다. 엘리자베스 무어(Elizabeth Moore)는 예배를 포함한 기독교의 성례는 인간의 거룩성과 모든 피조물의 보존과 안녕을 위해 창조세계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서술함으로써 교사와 사역자 들은 피조물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례를 함께해 가는 동반자요 동료가 된다(Moore, 2004. 10-12).

세월호 사건에 응답하는 기독교 도보순례는 가족과 자식을 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희생자들과의 연대이며 고통을 함께 하는 연대가 예배를 통해 순례의 근본적 목적이 연대를 넘어선 자신의 성화와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한 신학교육의 한 장이었음을 일깨웠다. “한 학기 수업 아니 그 이상의 내용을 20일 간의 순례에서 깨닫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거나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봉사하고, 순례에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순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순례과정에서 오히려 순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라는 신학생들의 표현을 통해 순례를 통한 신학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b. 환대경험을 통한 교회론의 사유

도보순례를 하면서 순례자들은 기도하며 세월호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순례자들에게 중요한 성찰적 주제를 던져준 것은 ‘환대의 경험’이었다. 순례자가 경험한 환대는 첫째, 순례자 서로를 향해 베푸는 환대이다. 서로 쉴 자리와 물을 권하고, 쉬는 동안 물집이 덜 생기도록 서로의 발을 돌보아 주며 준비해 온 양말 등 가져온 물건을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누었다. 신발이 비에 젖지 않도록 신 싸개를 만들어 나누기도 하며 위험에 빠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보호하며 상호존중과 연대감을 표현하였다. 순례는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던 공간으로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었다. 낯선 사람일 지라도 곧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환대하며 순례 방식에 합류되곤 하였다. 한 참여자는 “함께 걸다가 순례를 마치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이에 정이 들어서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가면서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많이 힘들고 슬프지만 순례



가운데 느낀 환대와 배려에 큰 위로와 행복감을 느꼈다며 표현해 줄 때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말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환대가 공동체의 존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의 환대는 교회의 환대였다. 교회는 순례자를 환대함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었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고난과 고통에 연대하는 의미를 지닌 환대라는 것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회는 순례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음식과 물, 씻을 곳, 안전하게 잘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해 주었다. 길을 떠난 이들에게 환대는 생존의 방식이 된다(Guenther, 1992, 9). 그래서 초대 기독교 가정에서는 ‘세 가지 보물’을 항상 구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양초, 마른 빵, 여분의 담요를 늦은 밤 방문할지 모를 낯선 여행자를 위해 마련해 두었듯이(구미정, 2013, 180) 또한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물을 제공하고 발을 씻게 하고 갓 구운 빵과 음식을 대접하였듯(창18장) 순례자들에게 교회는 생명을 연장하고 순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거룩한 공간이었다. 하루의 피곤을 덜고 더럽혀진 발을 씻을 수 있는 휴식을 제공한 교회의 환대는 많은 신학생 참여자들에게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가 지역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회론적 성찰을 하도록 하였다. 교인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길 떠난 자, 순례자, 재난을 당한 자, 갈 곳이 없는 자를 위한 교회여야 함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렇듯 서로의 환대와 환대하는 교회의 경험을 통해 ‘신자유주의 지구화 경제 질서 아래 살면서도 그 이념에 포섭되지 않은 채로 얼마든지 다른 삶을 지향하도록 이끄는’(구미정, 2013, 184)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는 순례가 될 수 있었다. 자본주의는 경제시스템을 말하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다른 이름으로 정치,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통제와 억압을 생산하고 있다(Gibson-Graham, 2013, 11). 이러한 억압과 통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창조적 신앙은 교회의 교회됨, 환대와 상호 나눔의 신앙공동체로 가능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하였다. 신앙이란 공동체에 의해 소통되는 것이며 신앙의 의미는 공동체 구성원의 역사와 상호간의 행동,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관계성 속에서 발달하듯이(Nelson, 1967, 10) 순례는 교회로부터 환대경험을 하고 그에 대한 교회론적 성찰을 가능했던 강의실을 넘어선 또 하나의 교육공간이었다.

### c. ‘침묵’이 이끄는 영성교육

신자유주의가 불러 온 전 지구적 위기는 가난의 심화와 실업증가,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인간 간의 집단적 폭행과 폭력의 난무, 자살, 영적 침체로 확산되고 있다. 영적이며 신앙적 윤리와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심화해 온 교회 역시 이러한 다중적 위기 상황에 도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Fortman and Goldewijk, 2013, 10-12). 세월호의 집단적 죽음의 사건은 수단, 리베리아, 소말리아, 르완다,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의 집단적 폭력의 죽음이 우리 사회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일깨우고 있다. 죽음과 폭력의 문화가 생산하는 불안과 공포의 시대에 영적인 안녕과 정서적 안정의 회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모두는 물어야 한다. 선교신학자 황홍렬은 가족, 사회, 국가의 해체, 테러, 전쟁, 단일문화 강요, 생태계 파괴를 파생시키는 힘들과 대항할 생명지향적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였다(2014, 67-69). 도보 순례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황홍렬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이 남아 있는 실종자들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 지,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이끌고 있다. 그들이 이끄는 영적 순례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순례에 대한 성찰을 나누었다. 순례는 순례자들에게 깊은 영적 질문을 하도록 이끌었고 그러한 영적 순례의 계기는 침묵이었다.

순례는 대부분 몇 명이 참여하던 한 줄로 걷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적게는 15명 많게는 60여명에 이르는 순례행렬이었지만 순례 인원내 상관없이 순례는 침묵가운데 진행된다. 물론 대화를 막은 것도 금지한 것도 아니다. 둘이서 앞뒤로 때로는 안전한 곳에서는 옆에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하기도 한다. 할 일, 걱정, 그리움, 집, 다양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 지는 때도 있다. 그러나 걷다보면 어느 순간 모두 침묵으로 인도된다. 육체의 고통을 느끼며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된다. “걷기 시작하면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발바닥이 아파오고 다리에 근육통이 느껴지고, 허리로 통증이 올라오고, 점점 고통이 온 몸으로 전해질 그 때, 그 때 쯤 모든 생각이 멈춰진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러고 나서야 깊은 자신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비로소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한 한 순례자는 고통이 내면의 각성으로 이어진 신비한 경험을 나누었다. 고통을 미화해서도 안 되며 미화 할 수도 없다. 즉, 고통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신체적 고통으로 잡념, 욕망, 걱정 등으로 가득 채워졌던 생각의 자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존재의 근본적이며 영적질문으로 치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영적 경험은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친 방인성, 김홍술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증언되었다. 방인성牧사는 “광화문 광장은 온갖 소음이 많은 곳입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공해, 먼지, 일베, 관광객, 게다가 지하철로 인한 불규칙한 진동까지 있어서 사실 하루 종일 있기도 힘든 곳이지요. 금식기도의 처음 며칠은 그래서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김 목사도 느꼈지만 어느새 인가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고요함과 평화가 깃들었고 그 후로 배고픔이나 육체의 고통이 많이 덜어졌고 깊은 숙면을 할 만큼 안정이 되었어요.”라고 말하며 그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럴 수 없었다고 그들의 영적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고백은 이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했던 자원봉사 조계성 원장(일신연세가 정의원) 선생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인터넷기사). 순례과정에서 매일 드려진 예배는 반드시 침묵의 시간을 포함하였다. 하루를 여는 기도를 드리는 동안 순례의 목적이었던 기도주제를 침묵가운데 늘 새로이 일깨우고 저녁기도회에는 하루의 순례 가운데 일어나고 경험한 일들을 침묵가운데 정리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공명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영적인 대화를 포함하였다. 신학생들과 순례자의 침묵으로 걸어가기와 침묵기도, 침묵의 성찰시간으로부터 공유한 내용을 간략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주님이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잃은 생명들의 수만큼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세계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들의 몫까지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
- 순례의 길에서 깊은 자신과의 대화와 생각하기가 가능한 순간은 늘 차들이 많이 없었던 조용한 길을 걸을 때였던 것 같다. 개발과 진보라는 문명세계에서 어찌면 우리는 기도하는 법, 생각하는 법을 잊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분주함을 인식하며 통제하는 것일 것이다.
- 침묵가운데 걷다보면 시간의 다른 층위를 느끼는 경험을 느끼곤 한다. 쉬고 있어도 걸어가고 있는 느낌, 걸어가고 있지만 쉬고 있는 느낌,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시간을 생각하였다. 그들의 멈춰진 시계를 다시 돌게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의 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순례에 참여하였다. 우리가 순례를 한다고 변할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침묵가운데 성찰하면서 적어도 내 스스로가 생명체이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은 내게 커다란 발견이다.
- 힘들지만 이 순례가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걸으며 차분해지고 나의 내적 변화를 느낀다.
- 처음엔 분노가 많았다. 교회와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순례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길을 걸으며 순례를 하면 할수록 그 분노가 나에게 대한 분노였음이 깨달아졌다. 순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와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 침묵가운데 걷다보면 바람이 거기 있었구나, 나무와 새들이 거기 있었구나 하며 자연을 발견하게 되었다. 말하는 것을 멈추니 들려오는 것이 많았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로 들려왔다.
- 죄책감에 눈물이 많이 났다. 세월호 가족의 슬픔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무능함, 비겁함,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걸으며 생각해보니 ‘미안함’ 보다는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택하고 싶다

는 마음이 든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목사로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여전히 희망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한다.

- 순례는 내게 둘도 없는 소중한 인생의 전환점이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 매일 일정량을 걸어야 하듯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삶이 순례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걸으면서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었다.

순례자들에게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는 긴 기도의 여정이었으며,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견뎌야 하는 고독한 시간이었지만, 침묵가운데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시간이요 공간이었다.

### 3. 치유공간으로서의 순례

세월호 사건은 희생자 가족에게 말 할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죽음의 과정을 방송과 기사를 통해 생생하게 목도한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건발생 후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의미하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일상의 언어로 접할 정도로 희생자 가족, 생존자의 손상과 치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을 위한 각계각층의 치유프로그램과 회복을 돕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진상조사와 세월호 관련 사회적 과제가 가진 산적한 문제로 인해 현재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희생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긴 시간과 호흡으로 가야 할 사회적, 종교적, 역사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 글에 담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가 1차 희생자의 치유공간이라기 보다는 희생자 수백구의 시신과 그 가족들의 오열,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직접 목도함으로 2차 희생자가 된 장기봉사자와 세월호 사건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자기분노,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져있던 신학생과 교수, 기독교민들에게 순례가 어떻게 치유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치유를 목적으로 떠난 순례가 아니었지만 참여자들의 증언을 통해 순례가 그들에게 치유공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로 세월호 사건 후 개별적으로 감당하고 견뎌 온 부정적 감정이나 상처를 순례라는 공동체의 공간을 통해 부분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순례자들은 세월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매일 보도되는 뉴스, SNS로 전해지는 소식을 접하면서 정서적으로 압도당하는 경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주디스 헬만(Judith Herman)은 트라우마 증세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각성상태가 주는 불안, 찢기 어려운 상흔의 순간에 대한 기억에서 오는 어려움이 결국 자포자기의 상태로 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Herman, 1992, 35) 순례자들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몰라 정서적 장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순례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순례이라도 참여하고자 해서 아무런 기대 없이 왔는데 순례과정에서 경험한 위로와 정서적 안정감은 나 자신의 내적인 치유로 이어졌다”고 표현하였다. 또 순례를 통해 행복감과 위로를 느꼈다고 설명하면서 치유과정으로서의 순례의 의미를 긍정하였다. 순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순례단을 찾아오면서 상상한 분위기는 매우 침울하며 무거운 것 같아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 여러 생각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막상 순례를 함께 하니 슬픔과 애도에 대한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의지하며 격려하고 때로 웃기도 했던 모습이 마음에 남아요. 나 스스로가 위로받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었어요.”라고 표현하였다. 상처로 인해 낮아진 자기감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경험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으며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정서적 지지가 트라우마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Herman, 61)

둘째로 순례과정은 순례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 어떤 감정이든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던 공간이었

던 측면에서 치유적 공간이었다 할 수 있다. 순례를 하는 동안 순례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하였다. 함께 고통가운데 연대한다는 마음이 서로에 대한 연민과 격려를 가능하게 하였다. 순례를 하면서 순례의 단편적 모습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미디어를 통해 순례가 알려지면서 순례자들에 대한 외부의 요청이 있었다. 사진에 웃은 모습이나 밝은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조언도 해 주었다. 20일 간의 순례기간 동안 순례자들에게 허용되는 감정이 외부의 시선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의외의 경험이었으나 그 밝음이, 웃음이 순례 속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감동, 고통의 연대 위에 피어난 것임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순례 자체는 순례자들에게 웃음과 눈물, 절망과 회한, 희망과 격려 등 모든 감정들을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안전한 공간이었다. 함께 우는 경험이 축복이 되고 우는 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선언임(Lamm, 2004, 7-8), 죄책감도 슬픔의 또 다른 모습이었음을(Sullender, 1989, 12) 서로가 이해하였기에 누구도 그만 울라고 달래지도, 다독이지 않았다. 슬픔과 애도는 치유와 회복을 향해 흐르는 강물과도 같은 것이기에(Sullender, 13) 누군가 울면 함께 울기도하고, 소리 내어 울어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슬픔을 넘어 웃음 가운데에도 서로가 위로받을 수 있음을, 밝은 감정이라도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감정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순례는 심리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맞물려 다양한 감정과 경험이 표현되었던 시간이었던 동시에 고통과 좌절이 희망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 치유공간이었다.

#### IV. 나가는 말

실종자 10명이 돌아오기를, 특별법이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의 가치가 회복되는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시작한 순례가 마무리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의 변화된 모습은 희미하다. 하지만 순례가 가져다 준 의미는 뚜렷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순례에 참여했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신학생들을 향하여 “이 순례가 신학수업, 목회, 나아가 삶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의 이정표가 되리 란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순례의 무게를 표현해 주었다.

순례가 남긴 의미는 첫째로 사회적 고통과 아픔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사적 응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사회적인 문제와 거리가 있을 때 교회는 흥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였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문동환, 1973, 59-60). 이번 순례는 장로교 통합측 36개 교회를 비롯한 40여개의 개신교 교회와 광주의 호남신학대학교, 전주의 한일신학대학교, 대전의 대전신학대학교, 경산의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의 부산장신대학교, 서울의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신학도들과 기독교인이 한국 사회의 사건에 연대하여 참여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로, 주변이 희망이 됨을 인식한 순례라는 면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메시지와 선교문서에서의 구체적 응답의 의미로 기억해야 한다. 2012년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어 2013년 WCC 부산총회에 제출된 선교와 전도에 대한 공식문서는 대상화된 '주변'이 아니라 주변이 주체가 되는 선교를 선포(WCC 백서 458-484)하였다. '팽목에서 안산'이라는 주변에서 또 다른 주변을 향해 걸어간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는 새로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순례가 아니며(Lee, 1996, 151), 주변화되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순례가 아니라 주변화 된 교회와 사회, 삶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고자 하는 의지들의 새로운 영적운동이었음을 기억할 때 이 움직임은 세계교회와 연대하는 한국교회의 응답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 순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희망의 연대였음을 기억하고자 한다. 상처 받은 이들에게 공동체의 지지와 반응은 트라우마의 궁극적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특히, 사건에 대하

여 공적 인식과 상처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회복을 위한 책임적 행동을 하는 등 공동체의 다양한 형태의 행동은 희생자들의 회복에 매우 유의미한 연대행동이 된다(Herman, 70)는 것을 기억할 때 순례공동체의 순례행동이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소망의 순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넷째로 순례는 다양한 부조리를 생산하며 생명의 가치를 돌보지 않는 mammon화 된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과 스스로 주변이 되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순례로 기억되어야 한다. 에이미 추아(Amy Chua)는 현단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세계화가 빈부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인종혐오, 전쟁, 가치붕괴, 부조리를 생산하고 그 결과 생명파괴와 환경변화, 인간정신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비판한 바(Chua, 2004), 인간 생명과 공동체의 회복과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 이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성서적 이해, 신학과 교회의 응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Brubaker and Mshana, 2010).

순례에 대하여 지나치게 의미부여를 하거나 또 지나치게 단순화할 필요는 없다. 순례의 의미는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각자의 몫으로 거두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즉, 순례는 다시 일상의 삶을 순례로 인식하게 하는 또 다른 과제를 남겼다. 신학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서로에게서 발견한 다양한 모습을 기억하며 한계와 희망 사이의 내적 성찰을 해 가야 하는 것 역시 남겨진 숙제이다. 성공회 사제의 순례가 이어지고, 자전적 순례단이 꾸려지는 등, 순례는 또 다른 순례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 다양한 형태의 연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절망가운데 희망을 가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신학생의 성찰이 우리 모두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Clandinin, D. Jean and F. Michael Connelly.(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Filibus, Musa Panti. (2010). “Justice not Greed: Biblical Perspectives on Ethical Deficits of the Present Global Financial System,” Pamela Brubaker and Rogate Mshana, *Justice Not Greed*. Geneva, WCC Publications.
- Fortman, Bas de Gaay and Berma Klein Goldewijk.(2013). *God and the Goods: Global Economy in a Civilizational Perspective*. Geneva: WCC Publications.
- Gibson-Graham, J.K.(2013).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엄은희 이현재 역, 『그 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서울: 알트.
- Greenwood, Davydd J. and Morten Levin.(1998). *Introduction to Action Research: Social Research for Social Change*.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s.
- Guenther, Margaret. (1992). *Holy Listening: The Art of Spiritual Direction*, Plymouth, UK: A Cowley Publications Book.
- Herman, Judith.(1992).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Books.
- Kim, Andrew E.(2014). “Disasters and Contemporary Relevance of Religion: A Reappraisal of Liberation Theology” 한국종교학회. 한국종교사회학회 공동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Disasters, Death and Religions: Rethinking Religions in the Age of Global Endangerment.* 10-37.
- Lamm, Maurice.(2004). *Consolation: the spiritual journey beyond grief*, Philadelphia, PA: Jewish Publication Society.
- Lee, Jung Young.(1996).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 Maguire, Patricia.(1987). *Doing Participatory Research: A Feminist Approach*. Amherst, Massachusetts: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School of Education.
- Moore, Elizabeth. (2004). *Teaching as a Sacramental ACT*. Cleveland: The Pilgrim Press.
- Nelson, Ellis.(1967). *Where Faith Begins*. Richmond: John Knox Press.
- Robins, Richard.(2014). *Global Problems and the Cultural Capitalism*. 김병순 역.『세계문제와 자본주의 문화』서울: 돌베개.
- Robra, Martin.(2013). "The Ecumenical Movement in the Context of World Christianity in the 21st Century" Melisande Lorke and Dietrich Werner eds., *Ecumenical Visions for the 21st Century: A Reader for Theological Education*. Geneva: WCC Publication.
- Schipani, Daniel.(1988). *Religious Education Encounters Liberation Theology*.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 Sullender, R. Scott.(1989). *Losses in Later Life: A New Way of Walking with God*. Paulist press/New York and Mahwah: Integration Books.
- Volf, Moslav.(1996).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 WCC 제10차 총회 백서발간위원회(2014),『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백서』서울: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백서발간위원회.
- 구미정.(2013), “환대의 회복: 목하 ‘재개발’ 중인 한국사회에서 정의를 말한다는 것” 생명평화마당 엮음. 『생명과 평화를 여는 정의의 신학』서울: 동연. 2013.
- 문동환.(1973). “한국의 교육교회사” 김익선 편,『한국기독교교육사』대한기독교교육협회.
- 오현선(2014), “여성의 입장에서 본 정의와 평화의 순례: 공적증언” WCC 부산총회 후속 신학세미나 자료집.『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공적증언』호남신학대학교. 14-17.
- 황흥렬, “WCC의 생명선교와 한국교회의 생명선교의 과제”,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선교와 신학 2014 가을호 34집. 45-82.
-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C%9B%94%ED%98%B8\\_%EC%B9%A8%EB%AA%B0\\_%EC%82%AC%EA%B3%A0](http://ko.wikipedia.org/wiki/%EC%84%B8%EC%9B%94%ED%98%B8_%EC%B9%A8%EB%AA%B0_%EC%82%AC%EA%B3%A0)
- <http://m.newsjoy.or.kr/articleView.html?idxno=197731>
-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assembly/2013-busan/adopted-document-s-statements/message-of-the-wcc-10th-assembly>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91703561&code=94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91703561&code=940202)

#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신앙공동체: 세월호 가족과 동행을 위한 교회의 교육매뉴얼<sup>1)</sup>

오현선(호남신학대학교)

## I. 시작하는 말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 불평등의 문제, 반 생태적 개발에 의한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 국가와 계급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가난한 사람의 이주가 전지구화 되고, 세계 권력구조 간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인종 간, 국가 간, 종교 간의 갈등문제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당면하고 전 지구적 위기상황을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던 우리에게 크나 큰 충격을 주었다. 더 이상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며 효율을 극대화하며 경시되었던 생명존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며 우리는 아프게 깨달아 가고 있다. 시민 사회의 안녕과 민주적 사회 발전을 가져오게 한 것이라 생각했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만족 없는 욕망으로 치달는 순간 어느 누구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없다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한국사회는 각계각층의 자기반성적 행동수정, 가치 수정의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 완전 수습, 선체인양,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안전한 사회로의 장치마련, 재발방지, 희생자 보상과 치유라는 상식적 해결 과정으로 흐르지 않자 희생자 가족의 절망과 슬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민과 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안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멈춰진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족의 도보순례가 마무리되던 2월 14일, “오늘 맹골수도 현장에 갔었어요. 부표 2개 덩그러니 그렇게 떠있었어요. 그걸 보니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았어요. 거기서 바로 50미터 그 아래 내 딸이 있는데 건지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 찬 바다에 305일째 거기에 있어요. 진흙이랑 빨이랑... 어떻게요...”라며 오염과 탈진을 거듭하며 울던 은화엄마의 울부짖음은 은화아빠와 다윤이 부모의 호소를 이어졌다. 또 희생자 가족과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현재에도 팽목항, 광화문, 청운동, 홍대앞, 안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간담회, 일인시위 등을 함께 해 나가며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 진행하고 있다. 1주기에 나누었던 호소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 은화엄마

“처음에 4월 16일에 사고 났을 때 전원구조라는 말을 듣고 내려 왔었죠. 저도 우리 딸 살아있는 줄 알았구요. 우리 딸 옷 갈아 입히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305일이 되도록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가족 엄마들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어서 걸었습니다. 국민들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9명을 못 데려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규명이라는 거요. 배가 올라와야 할 수 있어요. 책임자 처벌도 배를 보고서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 거는 배속에 9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이 자리에 27명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어요. 우리 은하랑 같이 배를 탔었구요. 그 안에 같이 있었구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아이들을 데려와야지 생존자들도 살수가 있구요. 9명을 데려와야지 안전한 나라를

1) 본 논문은 『神學理解』 호남신학대학, 48집, 2015년, 187-208에 실렸습니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약속했죠. 마지막 한명까지 찾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러면 이제는 국민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오늘 현장가서 울다만 왔습니다. 저 현장가서 영영 울다만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리한 거 부탁하는거 아니라 생각해요. 수학여행 보내서.. 타고가서는 305일 동안 물속에 있는 우리 은하를 (흐느낌..) 우리 은하가.. 분향소에 영정사진도 못 놓고 있습니다. 18살 그 꽃다운 나이에... 사고 후 내려와서 상황 종료 될 때까지 여기(팽목항) 있었습니다. 내가 은하를 데려오지 않으면 지금도 혼자 있는 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은하 오빠... 인생도 아직 시작을 안 한 그 아이에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나라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말해주고 싶은 게 엄마의 작은 소망입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체를 들어올리는 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고가 그날 16일 날줄 몰랐듯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데려오고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18년을 기른 우리 딸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를 살지 모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리워 할거라는 거.. 우리 딸 보고 싶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이 친구들 다 데려와서 인생을 출발하게 해 주시구요. 국민들이 조금만 도와주셔서 선체인양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 은화아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구... 좀 도와주세요. 저 실종자 가족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인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다운아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가지구... 이런 나라가.. 부모가 자식 거기에 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 할 짓이 아니예요.... 자식 먹여 살리느라 일한 거 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죠. 도보하면서 여러분을 보는 순간 힘이 솟더라고요 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훨씬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우리가 여전히 교회의 프로그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바쁜 걸음과 호흡을 가다듬어 우는 자와 함께 하는 생명과 연민의 신앙공동체로 회복하는 일은 교회의 교육적 과제이기도 하다. ‘한 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건 서로 깊게 연결되는 것임’<sup>2)</sup>,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험한 세월호 가족육성기록단의 깨달음을 성찰적 지침으로 삼아, 이에 간단한 교육매뉴얼을 세월호 참사 경우를 중심으로 작성해 보고자 한다.

## II.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의 ‘동행’을 위한 신앙공동체의 교육매뉴얼

세월호 희생자 가족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다수이다. 참사 당일이었던 작년 4월 16일은 부활주일을 앞둔 수요일이었다. 충격에 빠진 성도들은 그 상황에 대하여 강단의 설교를 통해 답을 얻고자 했었으나 강단을 통해 전해진 목회자의 충격적 말들은 기사화 되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게 아니다.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2)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 기록』 (과주: 창비, 2015), 5.



모르겠다” “왜 이리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등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교회도 많았을 것이다. 세월호를 통하여 살아남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큰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 아이들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류의 해석은 가족에게 2차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언행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자식들이 눈앞에서 수장되는 과정을 목도한 부모들의 고통강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함께해야 할지를 사실상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직자들의 무지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었다. 몇 몇 소수 목회자들의 발언이었지만 목회, 목사, 종교의 공공성 측면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독교의 망언으로 전달되었고 그러한 교회는 삶의 위기를 직면한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말한 내용에 대한 의도를 서둘러 해명을 했기도 했지만 해명을 할 만큼 문제시 될 발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성서는 약자와 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를 그 어디에서도 애매하거나 이중적 의미를 담아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누가복음 1장을 펼치면 생의 위기를 맞은 마리아를 발견할 수 있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기까지 마리아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녀에게 닥쳐 올 생의 위기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세례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의 집이었다. 한국교회는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정죄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삶의 방식과 방향을 제안하지 않고 마리아를 격려하고 공감하며 3개월간 자신의 곁을 내어주었던 엘리사벳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자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 작은 자, 생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에게도 안전하며 편안하게 깃들며 동행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동행을 위해 교회는 위기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방식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며 준비하는 신앙공동체의 교육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1. 기억과 연대가 필요하다.

교회는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 위기 속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는 근본주의와는 구별되는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으로서 세상에 대한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 참여를 지향하면서 사회의 악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교회의 과제로 삼는 신학에 기초하는 사고이다.<sup>3)</sup>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사회가 가진 조급증은 이 사건 자체를 잊고 싶어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이 가운데 우리 교단(예장통합)을 비롯하여 소수의 교회들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진행한 도보순례가 행해졌고,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안산 분향소의 ‘목요기도회’, 그리고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자 하는 총회사회부의 노력, 개별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위기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하는 일이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희생자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합하여 연대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연대의 활동이 신앙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희생자를 찾아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후 수천수만 가지의 일들과 말이 많이 생겨났지만 처절한 부모의 목소리처럼 분명한 것

3) 홍상태,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 신학운동과 내한 선교사와의 관계고찰-세대주의 종말론을 중심으로”, 생명신학협의회 생명신학연구소 엮음, 『오늘의 생명신학』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5), 36.

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미수습자가 아직 배 안에 있고 억울한 죽음의 의혹을 푸는 열쇠가 배에 있으므로 훼손 없이 배를 인양하는 일이 모든 일의 첫 단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수백 명 죽었는데 진상파악을 요청하는 일조차 정부와 일부 시민들에게 거부, 저항당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과 기독교 성도인 부모들이 전국을 간담회, 도보순례 등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이유는 진상조사가 물거품이 될까봐 이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될까봐서이다. 이러한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한다면 죽기까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부모들 앞에 기독교인들은 결국 타자로서 밖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교회는 희생자 가족 성도들이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고 만다.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며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가족들은 기억해달라고, 선제인양에 힘을 실어달라고, 이 참사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증인(witness)’은 ‘함께함(witness)’임을 기억하여 그들의 ‘결’으로 가서 함께하려 할 때야 비로소 동행이 가능해 질 것이다. 참사가 일어나고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이 가중되며 갑론을박 말이 많은 상황이 되었지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이유를 모른 채 죽었고, 그 가족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에 교회는 주목해야 한다. 그들을 돕는 일이 교회와 성도의 과제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함께 이 일에 연대하는 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고 교회의 할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14년 8월 11일에서 30일까지 행했던 ‘기독교 생명과 정의의 도보순례자’들에게 쉴 곳과 음식을 나누어준 대한예수교장로교통합교회 총회와 지역교회의 연대는 매우 의미 있는 동행이었다고 본다. 기록을 위해 그 교회들의 이름을 이 글에 남기고자 한다.

총회 사회부, 진도 임희제일교회, 진도체육관, 해남 우수영제일교회, 해남 금호교회, 목포 양동제일교회, 무안 도림교회, 무안 무학교회, 나주 고막원교회, 나주교회, 송정제일교회, 광주YMCA, 광산 빛과 사랑교회, 장성 희망교회, 장성 사거리교회, 정읍 천원제일교회, 정읍중앙교회, 정읍 태인제일교회, 김제 용산교회, 전주 효자동교회, 전주 동성교회, 익산 왕궁제일교회, 익산 은평교회, 논산 애육원, 화악감리교회, 계룡교회, 선창교회, 신탄제일교회, 청원 남이제일교회, 청주 용암동산교회, 청원 오창교회, 성공회 병천교회,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중앙교회, 평택동산교회, 화성 주향교회, 화성 선돌교회, 수원 하늘꿈 연동교회, 안산 구로문교회, 안산제일교회이다.

총 40개 개신교회와 단체가 함께 기억과 연대의 활동을 하였다. 사건에 대하여 공동체가 기억을 함께 하며 인식을 공유하는 등의 공적 인식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기에 이 교회의 지원은 매우 의미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정체성은 예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교회와 성도의 삶으로 행하는 데에 있음을 매뉴얼에 기록하듯 담아내야 할 것이다.

## 2. ‘공감’ 학습이 필요하다.

일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부정의와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침묵했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행하시라고 탄원하였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전지전능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심을 원망하였다. 세상의 생명을 구하려 하나님은 이미 그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의 아들을 내어 놓으려 때를 쓰며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일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감의 태도를 표현하며 다가가야 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는 함께 하고 싶지만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지를 묻는 교회도 적지 않다. 이에 교회는 성서를 희생자 관점에서 읽고 연구하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산상수훈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서로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예수는 생명과 평화, 정의적 관점의 인격적 친절함을 가르치고 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먼 길의 동행조차 서슴치 않을 것을 예수는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두 개 인 이유가 하나는 결혼식의 입장을 위한 문이고 또 하나는 슬퍼하는 자를 위해 ‘이 집에 거하는 자를 위로하소서’ 라고 쓰인 문이 있다고 한다.<sup>4)</sup> 삶은 즐거움과 축하할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듯 교회는 축하할 일과 우는 이들을 위로하며 공감하는 곳이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니라 교회와 신앙공동체가 공감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고통당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과 중립은 폭력과 가해의 또 다른 얼굴<sup>5)</sup>이기 때문이다.

공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어서 각 교회공동체는 성도들에게 공감에 대한 신학적 관점, 성서적 근거, 목회상담과 전문이론에 근거한 공감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의도와 상관없이 학습되지 않은 주관적 공감의 표현은 자칫 상처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신앙적 표현으로, 신학적 견해로 전하며 위로하려하기 보다는 희생자 관점에서 함께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그 진정성이 전달되는 표현방식을 배워야 한다.

### 3.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가족이 가지는 다양한 감정에 다가가 그들이 느끼는 대로 ‘같이’ 느끼는 것이 공감인데, 흔히 우리는 내가 가진 감정이 그들을 ‘위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후자는 공감이 아니라 동정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감정은 너무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가운데 느끼는 감정들이라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울음을 울다가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기막혀 하며 하루에도 수만 수천의 감정이 이들을 휘감아 지나간다. 살아가고 있지만 먹어야 하며 자야하며 그 가운데 가끔은 웃기도 하며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가족들의 단편적인 모습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여 동정하고 비난하며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무책임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심리, 사회, 종교나 상담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세심한 태도로 다가가야 하리라 본다. 어떤 내용이든, 표현이든, 비난, 비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방식의 대화법과 상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긴장과 강요됨을 느끼지 않고 듣는 자도 모두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억압없이 들을 수 있는 상호신뢰가 중요하다.

가족과 동행중에, 또 부모들의 인터뷰를 모아 만든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통해 만나는 가족들의 감정에는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가장 깊고 짙은 감정이 있다. 원치 않았던 상실은 분노를 가져오고, 슬픔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슬프고 화가 나서 슬퍼지는 것이다. 슬픈 감정은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상처로부터 오는 감정이며 함께 따라오는 감정은 분노, 좌절, 절망, 죄의식, 불안 등이다.<sup>6)</sup> 그래서 슬픔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초기단계는 아무런 느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런 상태이다.<sup>7)</sup> 대체로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4) Maurice Lamm, *Consolation: The Spiritual Journey beyond Grief* (Philadelphia, P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8.

5) 박승인, “결코 지나가 버릴 수 없는 아픔 앞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 땅의 신학자들, 『결에 머물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50.

6) R. Scott Sullender, *Losses in Later Life: A New Way of Walking with God* (Paulist Press/New York and Mahwah: Integration Books, 1989), 11-12.

7) 이 내용은 권진숙 목회상담가가 행한 ‘사별의 아픔, 슬픔을 돕기 위한 세미나’ 자료의 내용을 개인의 허락을 받아 소개한 것이다.

억울한 희생으로 여기는 경우 이 경험은 반복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시기로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깊은 슬픔, 분노, 짜증, 불안감, 우울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 외에도 죽은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의식, 해 주지 못했던 기억에서 오는 후회와 한의 정서, 홀로 남게 된 외로움, 다른 자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세월호의 억울함이 묻히고 잊힐까봐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 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과 이웃들로부터의 낯설고 억압적인 시선도 불편하거니와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피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서 오는 수치심도 있다. 따라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감정들을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받아들이도록 알리는 것이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도움이 된다. 셋째단계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재정비의 시기이다. 자신의 에너지를 감정에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고 생산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게도 된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가족과 주변의 사람, 기독교동체가 슬픔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학습하고 표현하도록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아이들은 반드시 천국에 갔을 거예요” 등 틀에 박힌 안부나 위로는 오히려 서운하고 짜증마저 일어난다는 솔직한 마음도 발견한다. 유사한 경험은 비체계적인 상담소 상담경험에서도 느꼈다고 한다. 같은 얘기를 계속 묻고, 가족들에게 전문가라는 권위로 가르치려하고, 상담가의 잦은 교체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해야 하는,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되어 차라리 분향소에 나가 가족과 함께 있으면 순간적이지만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하는 가족도 있다. 즉, 어떠한 판단 없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찾아와 잠시라도 따스한 눈빛을 건네며,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마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냥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위로 받고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겪으며 많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슬픔과 애도는 회복을 향해 흐르는 강과도 같은 것’이라는 말처럼<sup>8)</sup> 그러한 감정들이 강요되지도, 억압되지도 않은 채로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는 관계적 공간적 환경이 교회 내에 마련이 되어있는 가를 살피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4.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신앙적, 윤리적 잣대를 세우지 않는다.

세월호처럼 억울한 사건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신앙마저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가질 수 도 있으며, 주변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미수습자 가족 가운데 한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할 말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가요? 정말 왜 이러세요. 저에게..”라고 표현하고 싶다하였다.<sup>9)</sup> 희생자들이 천국에 갔다 해도 슬픈 감정이나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극적 상실을 겪은 사람들은 감정의 회복이 심해지고, 행동의 통제력을 잃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민이나 국민, 교회의 성도들이 납득할 방식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할 의무나 책임을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향해, ‘이제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라는 말을 붙이며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그래도 그래서 안 되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지... 믿는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하며 자신의 신앙적, 윤리적 기준을 세워놓고 그에 부합하는 태도와 행동을 제언, 강요하며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판단하지 않고 곁에 머물러 동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희생자 가족들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존재가 버려진 듯, 의미 없는 존재가 된 듯 여겨지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정 자체를 스스로 정죄하기 보다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사건은 사회적 공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희생자들은 무고한 개인들이며

8) 위의 글, 13.

9) 2015년 6월 15일 예장전국여교역자협의회 총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단원고 은화엄마의 증언

가장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5. 치유상담은 신뢰관계의 형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세월호 등 사회적 사건 사고에 의한 희생 가족들의 치유는 상담센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그런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분명하게 진행될 때 비로소 가족들이 치유이든 상담이든 시작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직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기에 희생자들의 합동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치유관련 상담보다 가족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일에 대한 공감과 연대행동이 우선적 과제가 된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행해지는 상담은 가족들에게 무의미하다. 문제해결후 상담이라는 단계적 사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담센터이든 치유센터이든 심리적 지원을 하려는 전문가와 교회가 희생자 관점을 가져야 하기에 사건이나 상황자체와 해결과정에 대한 공감적 이해없이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희생자, 생존자, 가족 등 모든 세월호 관련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트라우마를 영구화하지 않도록 가족의 현장에 함께 하며 동행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애도과정의 실패는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을 영구화할 수 있기에 진상규명과 실종자를 모두 찾는 일 자체가 애도과정에 포함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위한 애도과정에 통념적 시간과 기간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애도를 어렵게 하는 각계각층의 무례한 소음들을 저항하는 방식으로 참된 애도를 지켜갈 수 있다.

부모들은 ‘상담도 결국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건데 자식은 죽었는데 자신이 살겠다고 상담 현장에 나오는 것도 정말 힘겨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되도록 가까이에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요청할 때까지 곁에서 함께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배도, 기도도, 대화도, 상담도 가능한 시기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며 그때까지 사랑과 공감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이 중요하다. 진상은 조속히 드러나야 하지만 가족의 치유,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천천히 기다림의 시간임을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목회상담학자 권진숙은 ‘애도 사역이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동행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누군가 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함께 동행하고 슬퍼하고 공감하는 것이 애도사역’이라 하였다. 또한 헬만(Herman)은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의지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공동체의 반응은 트라우마의 궁극적 회복을 위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건에 대한 공적 인식, 상처에 대한 책임의 공감, 상처의 회복을 위한 책임적 행동을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10)</sup> 교회는 가족들에게 자칫 값싼 동정같이 느껴질 수 있는 시혜적 상담의 측면을 거두고 공적인식의 연대와 회복을 위한 진지한 사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sup>11)</sup> 치유의 희망은 절망을 이해하고 함께 깊이 공감하지 않은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감과 공적 책임의 연대 없이 희망을 선포할 때 절망하고 분노 할 자리마저, 슬퍼할 공간과 기회마저 빼앗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 6. 가족들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피고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10) Judith Herman,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Books, 1992), 70.

11) 권수영, “희생자의 암묵기억, 그리스도의 트라우마에 동참하는 교회”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하는 이 땅의 신학자들, 『곁에 머물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01-116을 참고하라.

직접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는 교회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성숙한 성도의 식과 자원봉사의식이 필요하다.

### 1)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간신히 끼니를 챙긴다. 시장가는 것도 힘들다. 자식 죽은 집에서 음식냄새 풍기며 밥상을 차리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웃들이 ‘괜찮나’고 묻는 질문이 야속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괜찮냐 되묻고도 싶지만 누가 우리 마음을 알까 싶어 집밖으로 나가는 일을 줄였다”<sup>12)</sup> 라는 한 아버지의 말처럼 가족들은 살기위해 먹어야 하지만 먹는 일조차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사회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 이웃, 교회공동체는 안산, 광화문, 팽목항 등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들과 살고 있는 가족들의 삶과 마음을 살펴 일상의 식사를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희생자의 형제자매들 양육을 지원하는 일

단원고 희생자 학생의 부모들의 마음 한 쪽에는 잃은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에 대한 걱정도 크게 자리하고 있다.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자신의 슬픔과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지도, 사고로 인해 마음만이 아니라 몸마저 상해가는 아픈 부모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제로 남아있기에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 힘들다. 학생 희생자의 형제자매나 혼자 남은 부모들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을 살펴 도와야 한다. 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가족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전제로 한 자녀 동행프로그램, 가족동행프로그램,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안산분향소의 개신교 기도회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와 관계된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에 함께해도 좋을 것이다.

### 3) 함부로 말하지 않기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일반적 상황에서도 비폭력대화나 공감적 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확장하려 하지만 정작 인격 대 인격의 사회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예의, 상식, 교양 등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는 현대는 상처받기를 가장 싫어하면서 가장 상처를 쉽게 주는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안산, 청운동, 광화문, 진도체육관, 팽목항, SNS, 인터넷 등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관련 현장에서 수많은 ‘공감’과 ‘무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 많은 과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는 세월호 현장과 사람들에게 보다 세심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대화가 오고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다. 세월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불문율처럼 하지 않는 말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또 올게요. 잘 있어요. 등등. 이러한 말들은 지극히 일상화되어 있는 말들이지만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 왜 이런 표현을 삼가야 할지 금방 알 수 있는 말들이다. 오히려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

12) 유해종씨 이야기, “죽은 뒤 지킨 딸의 약속, 아빠와 함께한 하늘여행”,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파주: 창비, 2015), 62.

많이 속상합니다. 저도 함께 힘내 볼게요. 모두가 괜찮아질 때까지 함께 할게요. 잊지 않고 뭐든 일상에서 해 볼게요.’ 등 도움까지는 아니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 고통,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 III. 글을 마치며

1년 전 모든 국민이 세월호가 잠겨가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그 처절한 생명상실의 황당한 상황에 발을 동동 굴렀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마음에 피해자들과 함께 안타까워했으며 분노했고 아파했다.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가를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소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무례하고도 성급한 발언을 하여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2차 가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은 이 사건을 생명의 가치보다 돈과 물질이라는 मामले에 굴복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참사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찾는데 함께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기술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sup>13)</sup>는 사회적 각성이 병행되어야 하듯, 기독교 공동체 역시 지난 1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를 물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난 1년간 어디에 있었는가, 앞으로 또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만하자며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잊고자 하는 것,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공감하고 함께 했던 자신의 기억도, 감정도, 관점도 부정하는 일이 된다.

94년의 성수대교붕괴, 95년의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98년의 경기여자 기술학교화재, 부산 냉동창고 화재, 99년 씨랜드 수련원화재,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 등 사고가 계속되었고 2014년의 경주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고양종합터미널화재, 장성호사랑병원 화재, 그리고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추락사고에 이르기까지 불안과 절망, 우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사회를 향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계를 모르는 물질에의 욕망에 사로잡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mammon화 된 인간과 사회, 신앙공동체는 결국 자신의 안전과 생명마저도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교육학자 엘리스 넬슨(Ellis Nelson)은 “신앙이란 공동체에 의해 소통되는 것이며 신앙의 의미는 구성원의 역사와 상호간의 행동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관계성 가운데 발달한다”라고 하였다.<sup>14)</sup> 사회적 위기, 생의 위기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처소,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 가족들의 뜻을 공감하며 그들 곁에 함께하는 일이 우리 신앙공동체의 교육적 실천적 과제임을 기억하자.

13) 박현수, “커리케인 카트리나가 주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 프레시안 2014년 6월 16일자 기고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022>

14) Nelson, Ellis. *Where Faith Begins* (Richmond: John Knox Press. 1967), 10.

## 참고도서

-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파주: 창비. 2015.
- 권진숙. “애도사역II.” 기독교타임즈 2014년 5월 10일자 기사.
- 박승인. “결코 지나가 버릴 수 없는 아픔 앞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 땅의 신학자들. 『결에 머물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박현수. “커리케인 카트리나가 주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 프레시안 2014년 6월 16일자 기고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022>
- 홍상태.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 신학운동과 내한 선교사와의 관계고찰-세대주의 종말론을 중심으로.” 생명신학협의회 생명신학연구소 엮음, 『오늘의 생명신학』.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5.
- Herman, Judith.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Books. 1992.
- Lamm, Maurice. *Consolation: the spiritual journey beyond grief*. Philadelphia, P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4.
- Nelson, Ellis. *Where Faith Begins*. Richmond: John Knox Press. 1967.
- Robins, R. *Global Problems and the Cultural Capitalism*. 김병순역. 『세계문제와 자본주의 문화』. 서울: 돌베개. 2014.
- Sullender, R. Scott. *Losses in Later Life: A New Way of Walking with God*. Paulist press/New York and Mahwah: Integration Books. 1989.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602500041>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23500158>



# 하나님의 연민과 인간의 연대: 지역공동체와 기독교여성교육<sup>1)</sup>

오현선(호남신학대학교)

“인간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 안에 자신을 관여시켜야 한다”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을 쓰게 된 데에는 두 가지의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지난 5월 6일과 7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에서 개최된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 국제 학회였다. 펜 스테이트 대학(Penn State Univ.) 에두아르도 멘디에타(Eduardo Mendieta) 교수의 “Divine Pedagogy and the Gospel of Liberation”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프레이리에게 영향을 받은 세계 각국의 학자, 지역사회 교육활동가, 예술가, 박사과정의 학생들의 다양한 글과 작업들이 발표되었다. 학회는 책으로 프레이리를 만났던 내 유년의 시간을 떠올리게 했고 이제 다시 그를 기억하면서 나의 교육현장을 프레이리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격려하였다. 고교시절 지학순 주교의 추천사를 담은 번역서 ‘페다고지’를 읽으면서 ‘의식화’, ‘해방’, ‘자유에의 공포’ 등 나의 세계 밖에 존재했던 단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은 나는, 그 책을 읽고 또 읽으며 결국 대학전공을 기독교교육으로 삼았고, 바로 서울 구로동에서 야학을 시작하였었다. 그곳이 내가 처음으로 접한 ‘지역’이었으며, 야학의 노동자와 대학생들은 내가 처음 관여(engage)하게 된 ‘지역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계기는 프레이리 학회 참여를 위해 출국하기 전 올해 3월, 1982년 구로동에서 만났던 노동자와 대학생들과 연락이 닿아서 30년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일이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프레이리’와 ‘인간화된 사람’들(그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을 다시 만나게 된 2016년의 삶이 계기들이 이 논문을 가능하게 하였다.

파울로 프레이리 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는 1921년 브라질에서 출생하여 브라질 민중해방을 위해 일한 교육활동가이다. 탈문맹교육(Literacy Education)을 계기로 브라질 체제전복에 대한 의심을 받고 투옥되었고 투옥 후 2년, 1964년 브라질로부터 해외로 추방되었다. 20년에 가까운 망명생활을 하면서 칠레 농지개혁협회, 미국 하버드 대학 사회변화개발연구센터 활동을 거쳐 스위스 제네바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교육국에서 일하였다. 그곳에서 탄자니아, 기니아 비소, 앙골라, 모잠비크, 페루, 니카라과 등 아프리카, 남미의 탈문맹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971년에는 제네바에 문화행동연구소(Institute of Cultural Apiton in Geneva)를 설립하였다. 망명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브라질로 돌아온 이후에는 대학강의를 하며 노동당결성과 진행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997년 브라질에서 소천하기까지 20여권의 책을 저술하였다(McLaren, 1997, 103).

이 글은 지역공동체에서 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하여 프레이리의 주된 저작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의 서술과 교육과

1) 본 논문은 『기독교교육논총』 Vol. 47, 2016, 189-218에 실렸습니다.

정에서 표현된 교육 참여자들의 성찰적 이야기들로 구성되었다.

## II. 하나님의 연민과 인간의 연대: 기독교교육과 지역공동체의 만남

기독교교육이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프레이리에 실천(Praxis)은 단순한 행동(action)의 반복이 아니라 행동과 성찰(reflection)의 의식적 순환과정이다(Freire, 1979, 34). 현장의 문제를 신학화하고, 신학적 주제는 다시 현장에서 구현되는 방식을 전제로 하는 실천신학은 신학과 현장의 변증법적 결합을 지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은 신학의 현장이며 신학은 지역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학문이다. 교회역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의 공존을 위한 공간자원(agency)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지역을 위한 교회의 교육사역은 선택적일 수 없다. “교회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며 역사에 관여하는 기관이어서 그들이 존재하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Freire, 1985, 121)는 프레이리의 통찰은 여전히 옳다. 기독교교육은 활동주체, 공간, 내용을 성도에서 지역주민까지, 교회 내에서 지역공간으로까지, 성서내용에서 성서해석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하여야 한다.

민중들을 위한 교사였던 예수그리스도는 거리에서, 광야에서, 회당에서, 또 들에 계셨다. 예수의 지역은 거리였으며 그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역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받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하셨으며 그 사랑은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이나 행동방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행보를 함으로써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통적 교회와 예언적 교회를 구분하면서 예언적 교회의 교육적 사역을 강조한 프레이리의 통찰은 현재 한국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이리는 전통적 교회가 죄, 지옥, 영원한 저주를 강조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함으로써 언제나 인간은 자신의 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한다. 정죄하고 존재의 부정을 내면화하는 식민지적 사고로는 피억압자들의 실질적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985, 131-132). 게다가 식민화된 교회는 세계가 악에 속했다고 피억압자에게 설파하면서 그들을 현실세계로부터 소외시켰고, 다시 이러한 교회의 습속은 현대의 교회로도 이어져 신자유주의적 계산 방식으로, 표면적인 변화만을 외치는 ‘더 가지기 위한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사회적이며 역사적 실천과제를 말하지 않고 개인의 의식변화를 적당히 말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1985, 136-137). 전통적 혹은 식민화된 교회와 구별된 예언적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이 교회는 민중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요청한다. 예수와 같이 영원히 끊임없는 중생을 추구한다. …(중략) 예언적 교회는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추상적 비전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변증법적 비전을 향하여 어렵지만 그런 경험으로의 여행을 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민중들과 함께하는 프락시스와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들은 현실이 정적이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상황 역시 역사적 표현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1985, 138).

오늘날의 기독교교육도 교회사역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언적 교회의 교육사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개발과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 노력을 더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식민화된 교회는 성서이해는 문자적 해석에 그치고, 삶의 현장에서는 단지 선하게 사는 정도의 느슨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다. 개인이 개인을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의 확산, 삶의 변화와는 무관한 성서지식의 축적과 암송에 그치는 성서교육에서 돌아서 개인과 사회의 존재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교육사역의 변혁적 시도가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2016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가 하계대회 주제를 ‘지역공동체와 기독교교육’으로 제안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그 외연을 확장하는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연민(compassion)을 역사 속에 구체화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창조세계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만유에 충만하지만, 그 사랑은 연민의 마음으로 고통 받는 민중의 삶 속으로 육화하심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연민은 라틴어 ‘cum’과 ‘patior’의 합성어로서 영어로는 ‘to suffer with’ 즉,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Brown, 2010, 15-16). 브르네 브라운(Brené Brown)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둠을 알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타자의 어둠에 온전히 현존할 때’라고 하면서 연민이 일어나는 순간 양자의 관계는 위로자/희생자, 치유자/상처 받은자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적 존재로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2010, 16).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에 대하여 연민하시는 하나님은, 군림, 조정,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상처받은 존재와의 합일을 이루시고, 사랑이 충만한 평등 관계로의 변화를 이끌어 참된 해방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연민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닮아가고 배우려 애써야 할 것이다. 연민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시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연민을 배우는 ‘연대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개념은 프레이리의 존재 개념과도 유사하다. 프레이리에게 존재(being)의 의미는 단지 존재(exist)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거기에는 세계와 사람들을 향하여 관계적으로 현존(presence)한다는 의미가 있다(Freire, 2001, 25). 그래서 기독교교육이 지역공동체와 만난다는 것은 연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연민이 필요한 곳에 현존하고자 하는 인간의 연대행동이다.

### III. 광주지역과 연대하는 기독교여성교육

광주지역에서 목회자로, 주민으로, 신학자로 살면서, 지역의 문제는 언제나 내게 기독교교육적 과제로 다가온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에도 입시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소년의 문제, 다문화사회 핵심이슈인 이주민과 원주민의 문제와 그 자녀문제, 신앙과 삶의 괴리가 가져 온 자기분열감으로 어려워 하는 성도들의 문제, 신학과 교회현장,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 간의 간극에서 다양한 소외를 경험하는 신학생들의 문제 등 다양한 지역의 문제들이 기독교교육의 과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 많은 과제 가운데 기독교교육 전공자로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여성교육 측면에서 지역활동과 연계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프레이리의 해방교육 측면에서 그 내용들과 성찰적 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현재까지 미수습자로 남아있는 은화의 엄마와의 동행이야기, 혼인이주여성의 부모교육 이야기, 그리고 지역교회의 여성평신도 교육이야기를 지역에 연대하는 기독교교육의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1. ‘연대’하는 기독교교육 이야기 하나, 지역교회여성의 자기이해교육과 기독교교육적 의미

겨울이 깊어가는 2015년 12월 어느 날 오후,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단원고 학생 은화의 엄마가 내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엄마(자신)는 열심히 교회에 즐겁게 다녔었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기도하였으며 괜찮은 성도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딸은 건지셔야 하지 않았나, 적어도 만질 수 있게 찾아주셨어야 하지 않나 라며, 신학자인 나는 거기에 대답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물었다. 조심스러웠지만 물으시니 무어라도 답해야 할 것 같았다. 대화는 이렇게 이어졌다.

나: 엄마,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가진 능력과는 다른 것일 텐데 그것이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따라가려야 도저히 따라갈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엄마: 글썄요.

나: 엄마가 제 앞에서 힘들어 울고 아무리 울어도, 나는 내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엄마 손 놓고 돌아 서 갈 것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약하고, 그래서 악하게 되는 존재인가 봐요. 그런데 제 생각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고통당하고 슬피 울고 어찌 할 바 모르는 엄마에게 잠시의 주저함도, 어떤 고민도 없이 바로 곁에 와 함께 계시면서 눈물이 그치고 고통이 그칠 때까지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흉내 낼 수 없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요.

엄마: ... 그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은화를 안고 계시겠네요!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25:40)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마25:45)라는 성서의 증거는 교회가 언제나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고통 받는 사람과 또 그러한 지역을 향해 함께 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때 기독교교육 활동가에게 ‘지역’은 지리적 공간이 아닌, 심리적으로 존재적으로 연대하는 공간이 된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의 동행은 총회와 지역교회와 연계하는 공적차원과 가족들과 만남을 지속하는 사적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총회와 교회의 활동가운데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에 대해 조언하고 협력하는 일, 교회가 이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일, 세월호 가족을 돕는데 필요한 지원과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공적차원의 일로 표현될 수 있다. 사적으로는 미수습학생의 가족과 만나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 함께 밥먹는 일, 세월호 사건과 인양상황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 듣기, 대화 가운데 제안된 의견들을 사회화하거나 실천하는 일, 명절에 함께 하는 일, 예배와 기도, 자녀걱정 함께하는 일, 팽목항을 방문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하나님의 연민하심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응답적 행위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 대한 연대활동이요, 교육활동가로서의 소명을 수행하는 일이다.

지속적 관계 맺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8월에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해 팽목에서 안산으로 떠났던 20일 간의 ‘생명과 정의의 기독교도보 순례’를 계기로 미수습자 가족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미수습자 가족을 대표하여 인양을 촉구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원고 학생 은화가족, 다운가족과의 연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교단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종교에서도 이러한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종교계의 상식이하의 목소리

가 난무하였었기도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원불교 박현공 교무는 “정부의 무능으로 수백 명이 멸절히 살아있는 채로 수장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 부처님, 하늘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유족이다”(황경훈, 2014, 76)라는 진심어린 고백을 하였고 이 외에도 각 종교계에서 가족과의 연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연대활동은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 자본으로 권력으로 뭉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무력하게 가족의 죽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 하고자 노력하는 존재적 공감능력을 발휘하는 일일 것이다. 고통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입장이나 교리의 차이는 문제가 될 수 없음을 현장에서 본다. 신부와 수녀, 승려, 목사 모두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에큐메니칼 정신을 경험하고 있다.

프레이리는 ‘마음이 좁은 종교’에 대하여 경계하였다. 그들은 부자들이 행하는 착취를 지지하며 성과 세속을 나누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죄를 정화하는 데에 더 집중함으로써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로 진정한 종교인은 하나님에게 부정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Freire, 2003, 65). 종교의 다름에 상관없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경험, 혹은 신뢰 관계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정서적 지지는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힘이 된다(Herman, 1992, 61). 특히 혈만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에게 공동체적으로 발휘되는 지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공적인식의 공유와 공동체의 다양한 책임적 행동을 요청하였다(1992, 70).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공휼과 연민으로부터 오지만(예레미야애가 3장 19-22절),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기독교공동체와 교육활동가의 행동은 위로와 회복, 나아가 변화를 위한 연대활동으로 연결될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은화엄마와의 동행에서 기독교교육적 의미를 찾는다면 첫째로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기독교교육의 응답적 실천이라는 의미이다. 둘째로는 약자에 대한 우선적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성서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 역시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사명임을 확인하는 의미이다. 셋째로 상황과 인식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로 지역에서 행하는 교육은 대화(Dialogue)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였다는 의미이다. 다섯째로 진정한 교육활동이었나를 알 수 있는 방식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인데 이점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지난 2년 이상의 시간동안에 개신교 성도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 왔을 뿐인 한 아내요 엄마였던 개인이, 딸을 잃은 비극적 참사를 겪으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채로 사회적, 역사적 존재로 변화해 가는 것을 목도하였다. 그녀를 통해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관여하는 사람은 역사와 사회 앞에 책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필자 역시 목회적 돌봄과 교육적 돌봄 활동하면서 나 스스로의 변화와 각성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상황 가운데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학습의 주체로서 참여함으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존재가 됨을 이 관계적 만남에서 배운다. 학습환경은 건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현장에 함께함으로도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대활동을 통한 교육행위는 연대하고자 하는 참여주체의 존재 변화를 가져온다. 2016년 4월 15일 뉴욕 유니언 스퀘어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침묵시위에 참여했던 H교민은 이렇게 증언했다.

바로 이 광장 주변에 살고 있지만 이 광장의 주인이 되어 본 적은 없어요. 그저 행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기억행동에 동행하면서 주인의식을 느꼈어요. 또 한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한들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변화는 내게로 왔어요.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참여하는 순간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침묵시위, 평화를 위한 데모, 기억행동 모두 참여하는 나를 위한 것임을 오늘 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깨달았어요.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계와 ‘함께’한다는 것이기에(Freire, 2003, 33) 기독교교육은 지역의 문제와 상황에 함께 함으로 존재의 성숙과 변화를 돕는 과제를 수행해 가야 할 것이다. ‘신앙은 억압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며, 그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부하는 것’임을 현장에서 확인한다(Freire, 1985, xvii-xviii).

## 2. 연대하는 기독교교육 이야기 둘, 광주지역 혼인이주여성 부모교육과 기독교교육적 의미

광주는 5개의 행정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1,492,948 명이다(광주광역시통계연보). 국민의 배우자로 칭하는 외국인 혼인이주여성은 2015년 12월 현재 귀화자, 난민,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이주여성을 제외하고 3,309명으로 나타나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필자는 이주노동, 이주여성, 이주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책임감을 가지고 호남신학대학교소재 ‘생명과공명기독교교육과사역연구소(소장:오현선)’를 통해 지역과의 연대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 설립을 전후로 해서 문화간결혼가정과 선주민가정 자녀들이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캠프를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교회의 다문화사역을 위해 평신도, 목회자 활동가를 양육하는 ‘다문화사회이야기마당’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에서 교회와 신학교를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관련 이론교육과 케이스 스터디, 현장학습을 포함하여 모두 3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으로 활동하는 교육활동가는 경기지역의 외국인노동이주관련 센터의 지역 전문활동가들, 광주지역의 북구와 남구에서 혼인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 다문화주의 담론을 학문화하고 있는 신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GO, NGO 활동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한 달에 1회 자유로운 대화모임을 가지면서 광주지역의 이주민 관련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그 해결방식을 논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혼인이주여성의 가정불화, 자녀와의 갈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곧, 2015년에 기획을 시작하여 2016년 2월에는 30여명의 베트남, 캄보디아 혼인이주 여성을 교육하게 되었다. 부모교육을 통해 이주민, 여성, 엄마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생각할 기회를 가지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학습하여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갖도록 돕고자 하였다.

강의는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그곳 강의실에서 주1회 120분 강의를 4주동안 베트남여성, 캄보디아 여성 두 학급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부모교육을 위한 4가지의 강의주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모교육이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있나’, ‘나는 어떤 부모인가?: 자기알기와 자기살피기’, ‘나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의사소통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이 교육은 일반적 부모교육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 과제와 이주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인종인식, 인권인식, 제3문화아동으로서의 자기 자녀이해, 자기존중감 증진,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이주의 발생원인 이해 등의 과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하고 정교

한 교육공학적 기획과 교육방법을 모색하여야 했다. 이 교육의 특성을 다음의 몇 가지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이 교육은 프레이리가 제창한 탈문맹교육과 그 맥을 같이한다. 탈문맹교육은 학습자가 문자해독을 함으로써 학습자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더 큰 사회적 환경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변화하도록 돕는 교육(Freire, 1987, 89)이라는 측면에서, 또 이주여성의 부모교육은 엄마들 자신이 이주민이라는 것, 여성이라는 것, 또 세계의 신자유주의 시장의 흐름과 다문화적변화에 관한 변동들이 자신의 삶에 직관되어 있음에 대한 문맹상태로부터 깨어나는 학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문맹교육이 읽기와 쓰고 말하기 등 문자자체의 학습을 넘어서 삶의 문제와 관계 맺기 시작할 때 참된 교육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주여성의 부모교육은 그 교육을 통해 자기 인권과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도와야 하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둘째로 문화간결혼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종인식 형성이 교육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종에 대한 기존인식과 자기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이 부분은 한국사회 선주민이나 이주민 모두에게 의식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주민이라고 해서 해방적 인종인식이 저절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식의 변화는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주민이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의식의 변화를 먼저 취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역시 보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종인식에 대한 교육은 다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있는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교육이다. 인종인식이란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인식을 의미한다. 인종의 다름을 매개로 차별과 착취, 폭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종인식은 자신의 인종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인종적 사회 소수자들에게는 필연적 과제가 된다.

글로리아 라슨-빌링스(Gloria Ladson-Billings)와 델가도는(Delgado)는 프레이리의 비판교육(critical education)을 인종교육에 적용한 학자들이다. 라슨-빌링스는 “생물학적으로 규정되고 사회적으로 성립되는 ‘젠더’나 주어진 사회 속에서 부와 지위에 따라 표현되는 ‘계급’과는 달리 ‘인종’은 단 하나의 목적, 지배를 위한 개념”(1997, 128)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미국 정부가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이다’라고 인종개념을 개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사회에서 인종영역화는 누가 백인이고 비백인이냐의 식별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1997, 129-130). 델가도의 인종이론비판(Critical Race Theory)은 개인 자신의 현실을 명명하기, 비판사회과학연구방법을 사용하기, 시민권법률에 대하여 의심하기, 지식이 힘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기, 인종억압을 지지하는 권력집단에 의해 사용되는 신화를 폭로하기, 자유법률주의에 대해 비판하기를 강조하면서 인종문맹과 인종중립적 입장에 대해 저항적 이론이다(1997, 131).

인종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귀 기울이며 한국 교회는 단순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잘살기’를 위한 선언행위로서가 아니라 다수자인 선주민 정도와 소수자인 이주민 정도, 나아가 주민들과 더불어 반인종차별적 평화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기독교교육이 인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교육과정에서 인종적 다름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소외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그들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적 고민을 해야 할 시간이다.

셋째로 혼인이주여성의 부모교육은 참여자의 여성해방적 인식을 공유하는 교육이다. 이 교육은 문화적, 인종적 다름을 가진 소수자, 다수자로부터 주변화 된 소외자, 언어적 한계를 가진 결핍이 많은 사람, 가족을 위해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에 관한

부정적 존재의식으로부터 자신 역시 하나의 인간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임을, 가부장사회에서 해방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여성임을, 스스로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인격임을 발견해 가는 인식의 해방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여성해방교육은 파울로 프레이리가 거부했던 은행저축식 교육이 가지는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유사성을 갖는다. 은행저축식 교육이란 어떤 한 사람이 더 큰 권력, 지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그 나머지는 그/녀의 지식을 주입받는 방식이 정당화되는 교육을 말하는데, 여성해방교육은 이와는 달리 학습참여자 간 서로를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고, 인간 존재로서 서로를 만나며, 공동체를 통해 함께 배우는 학습을 지향해 가는 교육(Schriedewind, 1987, 179)으로서 비판교육, 문제제기식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이 교육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기인식,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려는 엄마의식, 지역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체로서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평가회에서 함께 한 여성들의 평가내용을 서술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아이 키우는 것이 어렵고 자신이 없어서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때리기도 했다. 이제는 아이를 돌보는 일에 조금 자신이 생겼다.
- 엄마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야한다는 생각을 자신 있게 하게 도와주어 고맙다. 같은 처지의 엄마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다.
-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 화를 많이 냈었는데 배운 것을 실천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다. 여성 인식이 없었는데 생겨서 좋다.
- 교육을 받은 후 연습하고 부드러운 엄마가 되었다.
- 자녀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배워서 좋았다.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주여성에게 부모교육이 확장되길 바란다.
- 여성으로 엄마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 사랑을 많이 표현하며 살고 있다.
- 이중언어를 긍정해주어 고맙다. 아이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것 같다.
-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의식개선교육이 많이 도움 되었다. 기죽을 필요 없고 당당하게 살 자신이 생겼다. 내 감정을 죽이고 강한 엄마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심으로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때리고 혼자 놀게 하고 그랬는데 나의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 신체만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엄마가 중요하다고 배웠다.
- 간섭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아이들과 나를 존중하게 되었다.
-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표현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월 1회 후속모임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면서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교육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지고 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은 그 내용의 변화도 모색해야 하지만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내용의 변화는 형식과 외연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성과 속, 세계와 교회를 이분화 시키는 신학적 사고는 기독교교육을 교회안의 전유물과 소비물로만 생각하게 하였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 세계,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통전적 관점으로 보는 신학적 사고는



기독교교육을 교회에 대한 비판, 세계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확장시킨다. 2016년 기독교교육학회가 지역을 만나고 지역공동체와 소통한다는 것은 이미 그 내용과 형식의 변화를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 3. 연대하는 기독교교육이야기 셋, 지역교회여성의 자기이해교육과 기독교교육적 의미

광주지역에서 살면서 대도시에서 살던 때와는 달리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날 기회가 많다. 특강과 설교로 만난 지역교회 성도들은 학교연구실로, 혹은 전화로, 이메일로 대화 혹은 상담을 종종 요청한다.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교회에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 평생 교회에 충성했는데 나이드니 소외감만 남는다는 것, 신앙은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여성으로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 목회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 자신의 내면의 문제는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것, 교회에서는 잘 된 이야기(그것을 소위 ‘은혜로운 이야기’로 표현한다)만 하게 된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이슈들은 교회의 신앙이 신학적 사고와 간격이 크다는 것, 신앙과 자기감(sense of self)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요청하는 대부분 사람은 여성성도들이다. 개인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기독교교육적 과제로 생각하여 신학교에서 ‘기독교자기이해교육’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회심리학적 성서해석을 시도한 설교와 특강을 하는 등의 응답적 실천을 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광주지역의 한 교회에서는 1년에 2회기씩 지속적으로 신학적 자기이해교육을 ‘디다케 테이블(Didache Table)’로 명명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그룹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부부단위로 함께 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여성성도 교육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 교육에서 활용하는 이론은 여성신학, 해방신학, 분석심리학, 여성주의 기독교교육론, 민중여성교육론, 평화교육론(평화교육프로그램 웹사이트) 등이며 이런 이론들을 교육교재로 만든 필자의 책을 교과서와 핸드아웃으로 활용하고 있다(오현선, 2011).

기독교여성교육을 통해 시도하는 노력은 학습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재건하는 일, 여성으로서 억압받은 공적/사적 경험을 나누고 해방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 일, 여성개인이 경험하는 억압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결정권과 통제력을 회복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성서해석을 위한 신학적 토론을 함께 해 가는 일 등이다(Schniedewind, 1987, 170-179).

‘디다케 테이블’만이 아니라 모든 해방적 기독교여성교육 수업의 특성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적 참여와 상호존중의 원칙위에서 진행된다. 참여자 간에 경청과 민주적 대화를 요청한다. 대화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진정한 깊은 사랑의 행위(Freire, 1979, 77)로서 대화 중심의 이 교육은 자신이 본 것을 서술하기, 문제를 규정하기,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기, 문제의 원인에 의문을 가지기,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기(Wallerstein, 1987, 38-39)를 포함한다.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일로부터 상호간에 평화로운 학습을 위한 약속을 미리 정하는 일등은 교육의 질적 성취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기독교여성교육은 해방적 여성주의 교육과 평화와 평등지향적 교육을 지향한다. 교육 첫 시간에 ‘우리의 약속’등을 참여자들이 함께 정하여 그 약속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상호 확인하여 상호존중적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기독교여성교육은 인지적 지식과 감성적 영역이 통합된 학습내용을 구성한다. 인지적 측면의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감성적인 영역을 배제하지 않음으로 보다 풍부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감성적인 것은 이론적이거나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기존의 지식에 대한 편견에 저항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여성신학적 해석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해석에 길들여진 여성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심미적 환경구성도 고려하여 적합한 기독교적 상징물을 활용하고 절기 감각을 반영하여 환경을 꾸민다. 전통적인 예배형식에서 느껴보지 못한 사소한 시도이지만 거룩한 예전(ritual)의 이미지를 경험하도록 한다. 참여자들은 ‘환경자체가 교육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셋째, 자신이 사는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 깊게 바라보기를 요청한다(pay attention). 이것은 이론과 생활, 신앙교육과 삶이 분리되어 가치관혼란과 신앙적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주체적 타자로, 주변화된 사람으로, 자기관여적이 않은 일들을 수행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 왔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사회적, 세계적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깊이 바라보고 여성들 자신의 창조적 언어를 사용하여 현실을 표현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해방적 의식화의 시작이다(Freire, 1985, 68).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강요된 침묵의 문화를 극복하고 기존과는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일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곳(1986, 72)이 기독교여성교육의 교실이 된다.

넷째, 기독교여성교육은 교육을 통해 변화된 내용을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정기모임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긍정적 경험이든 좌절경험이든 솔직하게 대화하고 공유하여 상호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교육을 마쳐도 삶은 지속되므로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통찰을 일상에서 계속 성찰하여 그 결과물은 다시 만나 공유하고 서로의 역량을 증진하는 계기로 승화하는 것이 중요한 후속작업의 내용이다. 평가 작업 시 여성들의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자유’이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열심히 교회의 성경공부, 각종 행사와 봉사에 최우선적으로 활동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의욕상실감을 매번 겪는 것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복음을 율법화하는 교회문화를 극복하고 참된 하나님나라에 대한 복음정신과 성서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참된 ‘자유’를 느낀다고 하였다.

지역에서 참사 후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 자신이 가진 특성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며 소외와 결핍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을 만나는 일, 여성이 다수인 공동체에서 살지만 주변화되어 살아가는 가부장적 교회문화에서 위축되어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모두가 지역에서 하는 기독교교육적 실천이다.

#### IV. 지역과 함께 기독교교육을 하는 연구자 활동가의 태도에 관한 조언: 프레이리의 관점으로부터

프레이리의 책 *Pedagogy of the Oppressed*와 *Pedagogy of the City*에는 교육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연구와 실천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기록하고 있는 바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후자는 도시 상파울로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프레이리가 교육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생각한 바를 인터뷰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프레이리는 교육활동가(연구활동가, 지역활동가, 기독교교육자, 교사 등 어떤 명칭으로 표현하든)의 탈중립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1993, 59-60).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육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할 때, 민중들과 함께 관계적 존재로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상파울로는 이주민으로 구성된 가난한 도시이며 사람들은 비숙련직에 종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먹을 것과 주거환경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사람들은 일터로 가기위해 많은 시간을 쓰고 쉬고 재충전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사회변화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운동에 참여하게 하여 시민의식을 재발견하도록 하는 일들이 문맹퇴치교육의 주요 과제였다. 그래서 프레이리는 상파울로의 민중들을 조직하고, 문맹퇴치교육을 시작하였다. 여기에 대학과 교회가 참여하여 2000개의 교육센터가 생겨났고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교육에 참여한 기록이 그의 책에 쓰여 있다(1993, 62-63). 그가 기획한 교육의 목표는 성인교육그룹을 도시 외곽 주변에도 확장하는 일,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하는 일, 문맹퇴치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정치적 인식을 고양해 가는 일, 민중들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공교육과 진보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기본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책 *Pedagogy of the Oppressed*에서는 주로 3장에서 지역관찰법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교육활동가들은(책에서는 연구가로 표현하였으나 지역에서 교육적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활동가로 명명하고자 한다) 지역과 함께 일하면서 지역주민을 자신의 연구물 생산을 위한 연구대상으로 삼는 태도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보다는 교육활동가들과 주민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교육활동가들에게 자신이 기획, 가정, 목표한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조언하였다(Freire, 1979, 99).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육활동가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여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활동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지역방문: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의 계기들을 관찰하고 대화하는 단계이다.
- 활동가들의 결과물에 대한 토론은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되어 제출한다.
- 평가회는 지역에서 함께 진행한다. 결과물에 대한 상호 상이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평가와 고찰의 내용을 기대한다. 주민이나 주민대표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 생성주제는 주민과 공유해야 하며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화한다.
- 주민들과 씨클 모임을 만들고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마치면 해결을 위한 공동의 과정이 진행된다.
- 교육활동가들은 연구결과와 진행 전 과정을 정리한다(1979, 102-118).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지 그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기구적 조직이나 학교형태가 아니라 그의 해방교육은 철저하게 '지역'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진행된 교육이었다.

## V. 나가는 말

21세기 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탈문맹교육이 더 필요한 사람은 권력과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정당성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일지 모른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혼란가운데 언제나 가장 먼저 위태롭게 희생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로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존재하기 위한 탈문맹교육이 절실한 시기이다. 광주지역에서 다양한 지역활동을 교육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 세 가지의 이야기를 주제로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하

였다. 세월호 미수습자를 딸로 둔 은화엄마의 모성이 사회화, 역사화되는 장면, 혼인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 자신의 신앙적 태도에서 인간화된 여성성을 찾아가는 교회 여성들을 만나는 일은 지역에서 교육하는 자로서 가지는 특별한 축복이다.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목회적 돌봄이나 가르치는 일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하나님의 연민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응답이자 연대행동인 기독교교육은 나의 삶이자 신앙고백이다. 그 중요한 과제를 실천하는 길(Journey)이 이 땅의 영원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내 정체성의 집(home)이다.

## 참고문헌

- 오현선.(2011). 『기독교교육, 엘리사벳을 찾아나서다』.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 황경훈.(2014). 『세월호 참사와 종교의 역할.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1056호, 74-81.
- Brown, Brené.(2010). *The Gifts of Imperfection*. Center City, Minnesota: Hazelden.
- Freire, Paulo.(1979). 『페다고지: 민중교육론』. 성찬성 역. 원주: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 Fiore, Kyle and Nan Elsasser.(1987). Strangers No More: A Liberatory Literacy Curriculum. In Ira Shor (Ed.), *Freire for the Classroom: A Sourcebook for liberation teaching*. Portsmouth, NH: Boynton/Cook Publishers. 87-103.
- Freire, Paulo.(1974).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NY and London: Continuum.
- .(1985). *The Politics of Education: Culture Power and Liberation*. NY, Westport, Connecticut, London: Bergin & Garvey.
- .(1989). *Pedagogy of the Oppressed*. NY :Continuum.
- .(1993). *Pedagogy of the City*. NY: Continuum.
- .(1999). *Pedagogy of Hope*. NY: Continuum.
- .(2001). *Pedagogy of Freedom*. Lanham, Boulder, NY,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2003). *Pedagogy of the Heart*. NY, London: Continuum.
- .(2005). *Teachers as Cultural Workers: Letters to those who dare teach*.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Herman, Judith.(1992).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Books. 1992.
- Ladson-Billings, Gloria.(1997). "I Know Why This Doesn't Feel Empowering: A critical race analysis of critical pedagogy." In Paulo Freire(Ed.), *Mentoring the Mentor: A critical dialogue with Paulo Freire*. NY, Washinton, D.C.: Peter Lang. 127-142.
- McLaren. Peter.(1997). Freirian Pedagogy: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and the politics of race. In Paulo Freire(Ed.), *Mentoring the Mentor: A critical dialogue with Paulo Freire*. NY, Washington, D.C.: Peter Lang. 99-126.
- Morton, Nelle.(1986). *The Journey is Home*. Boston, MA: Beacon Press.

Schniedewind, Nancy.(1987). "Feminist Values: Guidelines for teaching methodology in women's studies." In Ira Shor(Ed.), *Freire for the Classroom: A sourcebook for liberation teaching*. Portsmouth, NH: Boynton/Cook Publishers. 170-179.

Wallerstein, Nina.(1987). "Problem-Posing Education: Freire's method for transformation." In Ira Shor(Ed.), *Freire for the Classroom: A sourcebook for liberation teaching*. Portsmouth, NH: Boynton/Cook Publishers. 33-44.

연합뉴스(2016.4.26.). 다문화가족28만 가족...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5/0200000000AKR20160425180900371.HTML?input=1179m>

광주광역시(2015). <http://www.gwangju.go.kr/home/site/gwangju/download/제55회광주광역시통계연보> 최종파일.pdf.

평화교육프로그램. <http://www.teacherswithoutborders.org/>